대한 양계협회 소식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운동 추진위 출범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6개단체(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는 지난 21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관련단체 임직원과 양축농민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명의식 축협중앙회장)를 공식 출범시켜 축산물수입저지에 공동으로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이날 결성식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6월10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 수입쿼터협상을 앞두고 쇠고기 수출국들은 쿼터량증대와 SBS물량 확대요구 등 개방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저지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본회는 각 도·분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92학교조리실습 실시
5월18~23일, 배성여상

'92학교조리실습이 지난 5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종로구 창신동 소재 배성여상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로 실시된 이번 학교조리실습에서는 본회 직원의 닭고기와 계란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본회가 지원한 닭고기를 이용하여 양념통닭을 요리·시식하였는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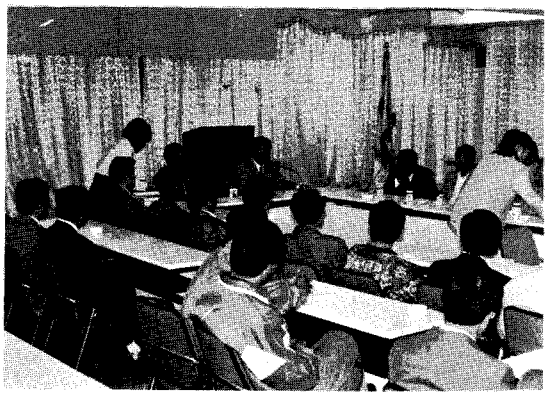
한편 학교조리실습은 지난 86년부터 실시하여 그동안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닭고기에 대한 요리법 및 영양적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제7회 가공식품 전시회 참가
양계산물의 우수성 홍보

수입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우리나라 부존식량자원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7회 가공식품 전시회가 지난 5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농가공산품센터 전시장(잠원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 본회에서는 고창위생란의 "고향달걀"과 동부축산의 "요드란"을 전시·판매하여 이들 제품은 물론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채란업자와 상인과의 대화개최
소위원회 구성, 대화 계속해 가기로



채란업자와 상인과의 만남이 지난 5월26일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생산자와 상인들은 난가고시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찾기위한 노력이 계속되오던 중 생산자 단체에서 지난 23일 난가고시제도 개선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준구 회장은 "유통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연합회와의 만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라 단언하고 이번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은 이번 난상토론에서 상인들은 판매가를 상인이 통제해야 하며 적정마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데 반해 생산자는 지방알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상인연합회에서 대표성을 발휘하여 유통질서에 참여케할 것을 요구했다.

뒤이어 상인측은 분과위원회를 구성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자고 주장했으며 생산자측은 대표들이 소위원회를 구성 난가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보자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결국 소위원 6명씩을 구성키로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의견교환을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대민지원 봉사활동 실시

본회 직원들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군에서 농촌일손 돕기 모내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을 돕기위해 실시한 이번 활동을 통하여 인력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건축법시행령개정
100㎡이상 간이축사 가설건축물로 인정

본회가 그간 농림수산부 및 건설부에 수차에 걸쳐 계사건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개정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건설부 공고 제 1992-25호에 의한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본회는 양계협 제63호(1992, 3.26 월간양계 92.4월호 • 176페이지 참조)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개정령은 본회가 건의한 내용이 상당량 받아들여져 계사건축에 있어 양축가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축사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어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였고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축사의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무포장 사료가격 고액 인상원인에 대한 질의

본회는 최근 각지부분회에서 사료값 인상에 대한 원인규명 의회가 들어옴에 따라 사료협회에 이에대한 원인분석을 요청했다.

지난번 사료가격 인상전까지는 25kg기준으로 지대사료보다 밀크사료가 100원이 싼값으로 공급되어 왔으나 사료가격이 인상된 현재는 50원만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어 지대사료에 비해 밀크사료를 더 많이 인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요인이었다.

사료값 인상에 대한 건의

본회 및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에서 공동으로 지난 4월17일 농림수산부에 사료값 인상건에 대해 건의한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건의내용	회신내용
○정부는 국내 축산업과 사료관련업의 상호안정을 위하여 사료값의 추가인상을 절대 허용하지 말것	○배합사료가격은 '80년 7월에 자유화되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주원료인 사료곡물이 98% 이상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세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곡물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금년도 2월에 업계에서 배합사료가격 인상시에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인상요인의 일부를 자체 경영개선에 의하여 자체흡수토록 지도하겠음.
○수입사료곡물의 농가유통을 허용하여 자가배합을 원하는 양축농가가 직접 배합사료를 제조 이용하므로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옥수수 등 일부 수입자유화가 안된 사료곡물을 양축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사후관리와 국내 옥수수 생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양돈 및 양계계열사업자에 대하여는 배합사료제조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낙농 및 비육우농가에 대하여는 축협 또는 낙협을 중심으로한 완전혼합사료(T.M.R)를 자가제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건의내용	회신내용
○자가사료를 제조이용하는 양축가 단체를 사료수급조절단체로 포함시켜 제도적인 사료수급의 원활을 기할것	○현재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여 축협중앙회가 사료조절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계열화단지의 자가배합사료공장 등이 축협중앙회에서 필요한 사료곡물을 추천 받아 이용하고 있으니 양지하기 바람.
○배합사료공장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기존사료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것.	○배합사료공장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하는 문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료관리법을 개정시에 검토할 계획임.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입사료원료의 관세를 인하하고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한 조세감면 구제법을 즉각 개정할 것.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의료보험용 의약품, 도시영세민 생활용품등 일반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제형편상 문제가 있어 영세율적용 해당액을 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사시설의 자동화 단지화 등을 위한 구조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을 제정 매년축산부분 세출예산에 계상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음을 이해 하기 바람(※'92예산에 2,043억원을 반영)
	○관세율 면제적용 -관세는 관세법 제28조의 6에 의한 종자 등 특별한 품목 이외에는 전 품목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세운용은 어렵다는 것이 담당부처의 입장이며, 다만, 사료원료 등은 최소세율인 3~5%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양축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타피오카, 알팔파, 수수, 호밀, 귀리 루핀시드 등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로 인하적용하고 있음. -향후 사료관세율적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인하적용되도록 노력하겠음.

'91. 12월 축산업 등록현황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91. 12월 현재 축산업, 부화업, 종축업 현황자료를 보면 산란계는 105개 업체에 4백24만 3천수, 육계는 237개 업체에 2백43만1천수, 산란용 중병아리는 5개업체에 47만4천개, 부화업은 257개 업체, 종계는 254개 업체가 각각 등록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축사 대책 협의회 개최 양성화 방안 적극 검토키로

본회가 그간 수차에 걸쳐 본회회원의 생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무허가 계사의 양성화 조치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92. 3. 5자 농수축협 조합장 청와대 건의사항 및 5.21자 축산관련단체 연명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의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5월26일 오후 2시에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실에서 제2차관보 주재로 관련 단체별 무허가 축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양계의 경우 무허가축사의 전면 양성화와 무허가 축사설치의 강력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허가 부화장 고발

본회가 '89년 4월 15일부터 초생추의 유

통질서 확립과 우량초생추의 공급을 위해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다음과 같이 고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업 주 명	권 순 경	오 익 석
부화장명	권 농 원	진 덕 농 장

'92선도 양축농가 육성대상농가 추천위원 선정

본회는 농림수산부 축정 27420-340(92. 5. 4)호와 관련 '92선도 양축농가 육성대상농가 추천위원 천거 의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추천분야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산란계	(사)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최준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이사 ○삼우농장(채란)경영 ○본회광주채란분회장
육 계	(사)대한양계협회	부회장	강석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이사 ○부영농장(육계)경영 ○(주)서울인티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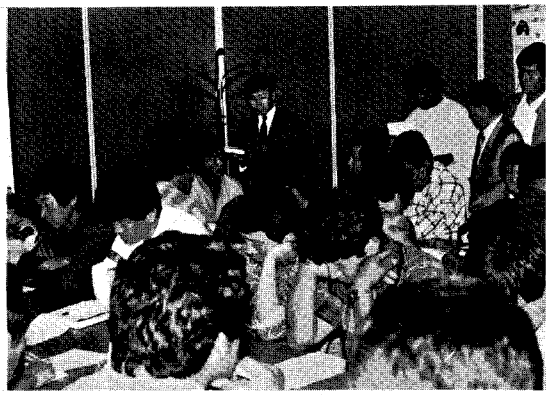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혈청검사 중요성 인식시켜 나가기로

5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13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복경기에 대비한 병아리입추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가격이 현상태로 유지될 경우 복병아리값은 좋으리라 전망했다.

이어 질병 토론회가 있었는데 질병예방 측면에서 혈청검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미참여 종계장에도 적극 홍보키로 하며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생산량 급증 예상



5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천안육계분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질병에 대한 다수의 폐사로 세미 출하가 증가되어 체중별 kg당 400원짜리 세미값이 낮았으나 앞으로 질병감소가 예상되어 생산량이 급증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들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IB, ILT, IBD)의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해 계군혈청검사소 성환우 수의사의 강의도 있었다.

이번 회의는 분회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에서 개최되었는데 약5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상인과의 대화 창구 마련키로

5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2일 오후2시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계란 고시가격에 의한 계산서 발급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상인연합회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만약 상인들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 보고키로 했다.

또 계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계도태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짧은 기간내에 난가를 대폭 인하시켜 노계도태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기타사항으로 계란 생산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생산비중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생산비 절감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인건비에 자가노동력비를, 위생비에는 시술료(접종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검정위원회 개최
제34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검토

제3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9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34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검토를 시작으로 제25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 검토, 제35회 육용계검정 입추수수 및 반복수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기타사항으로 케이지 조정(안)과 종계능력기준 설정이 있었다.

케이지 조정(안)은 일반양계장과의 사육밀도에 근접하는 원칙으로 현1조3실을 1조2실로 조정하여 조당 5수사육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종계능력기준 설정에서는 4개형질(성계생존율, 산란지수, 사료요구율, 난중)을 5년간 조사하되 평균치기준으로 1표준편차까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 검토되었다.

본회 광주 · 전남지부
병아리 가격인하 요청

본회 광주 • 전남지부는 지난 5월13일 병아리가격 폭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부화장에 병아리 가격 인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광주 • 전남지부는 병아리 가격이 양계산물 시세등락에 따라 당연히 하락되어야 함에도 부화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병아리 가격의 불이익과 물량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중고의 피해를 격고 있다고 주장하였다.